

‘기후대응댐’ 신설 공청회 강행... 화순 주민 불만 ‘붓물’

“주민 동의없는 건설 반대... 삶터 잃고 어디로 가라는 말이나” 환경단체 등 반발 속 진행 차질... “보상 받고 떠났으면” 의견도

환경부가 화순에 동북천댐 등 전남지역에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강행했다.

지역 주민이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항의에 나서 공청회가 차질을 빚었지만,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 주민들간 댐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갈려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25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테크노파크에서 영산강-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계획은 현행법상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계획안 수립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기후위기 댐 건설안이 포함돼 있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과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려면 현재의 댐 외에 추가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지난 7월 화순 동북천, 순천 옥천, 강진 병영천에 기후위기 댐 등 전국 14곳의 후보지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수립안에는 화순 동북천 댐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었다.

서해염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동북천댐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역설명회도 개최하지 못했다. 보고서에도 후보지로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동북천댐 건설계획은 지역사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제외했다”며 “지역사회 공감대 없이

댐 계획을 확정지를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공청회 시작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지역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발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주민은 공청회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이송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 설명회였으며, 기습적으로 공청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반발에 사업설명회는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은 주민 발언으로 대체됐다.

댐건설에 대해 주민간 의견도 엇갈렸다. 사평면 사수마을 이장 이동률(53)씨는 “이곳 사수마을은 이미 주암댐 건설 당시 피해를 봤고, 당시 떠나지 못해 남아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상수원 입에도 주민들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사용하며 어렵게 지내고 있어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하루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평면 사수리에서 15년간 살아 온 김성준(60)씨는 “상수도가 없고 안개도 많이 끼서 더는 사수리에서 농사짓기가 힘들다”며 “보상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사평면 주민들은 삶터와 고향을 잃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수 기후대응댐 사평면 대책위원장은 “사평면은 3개의 댐이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다”면서 “물줄기 하나에 댐 3개가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댐이 들어서면 안개가 많이 끼 지역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낮은 보상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주대책



25일 광주시 북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에서 화순군 사평면 주민들이 신규 댐 건설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원비 2000만원, 생활지원비 1인당 250만원(세대당 1000만원 이하)으로는 전세방은 커녕 달방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주민들 반발로 취소된 ‘동북천 기후 대응 댐 후보지(안) 주민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 비위 교원 증가하는 이유는?

적극 신고에 음주운전·스토킹 등 지난해 49명으로 4배 증가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남지역 교원들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고 비위 유형도 매우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각종 징계를 받은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은 모두 49명이다.

음주운전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스톱킹 범죄를 포함한 성 비위 9명, 아동학대 4명, 회계업무 부적절 4명, 학생체벌 2명, 성적 조작 1명, 기타(교통사고·직무태만) 17명 등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4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

됐으며 3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해임 사유로는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력, 성추행, 학생·졸업생 성폭행 등이며 한 사립교 교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됐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원들은 강동(1명)·정직(6명)·감봉(5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징계 교원 숫자는 지난해 1년간 전체 13명보다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5명과 기타(교통사고·직무태만) 8명 뿐이었는데 올해는 숫자도 늘고 징계유형도 다양해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

포스코 설립 후 최초...노조 쟁의행위 가결

포스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934명 중 5733명(72.25%)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쟁의권 확보는 1968년 회사 설립 이래 처음이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광양·포항 제철소 노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당장 파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법에 보장된 연차사용 등 준법 투쟁을 우선하면서 사측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사측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과 격려금 300%를 요구한데 사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8일과 21일 두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다음달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출생식 시작으로 12월 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인근에서도 출생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

‘연말에도 5월 정신’ 윤상원 열사 산타 변신

윤상원기념관, 5·18 교육 체험 키트 선착순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인 윤상원 열사가 산타로 변신한다.

윤상원기념관은 광주지역 150여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산타가 된 윤상원 열사, 천동마을 크리스마스 선물 1호’를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천동마을 선물 1호’는 윤상원기념관이 올해 처음으로 제작한 5·18교육체험키트로 12월에도 ‘오월 정신’을 되새기자는 뜻을 담고 있다. 광산구 천동마을은 윤 열사의 태향지다.

체험키트는 나만의 수제도장 만들기, 팝콘으로

꾸미는 이팝나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는 들불방향제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팝콘으로 꾸미는 이팝나무 만들기’는 팝콘과 초콜릿, 초록초코벨을 활용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나무인 ‘이팝나무’를 만드는 체험이다.

기념품과 간식이 포함된 체험키트는 무료로 제공된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윤상원기념관 QR코드, 인스타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연인 빙자 돈 갈취’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주의보

광주경찰이 연인을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주의보를 발령했다.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액수도 커지고 있는 점에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에 올해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31건에 달하고 피해액수도 14억원을 넘는다.

로맨스 스캠은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아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 금전적인 갈취하는 범행이다.

경찰은 최근 해외 파병 군인, 유학생, 사업가 등을 사칭하면서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 방식은 카카오톡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라인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활용한 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뿐만아니라 기존에는 단순 생활비나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항공료 등을 요청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쇼핑물이나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권유 등 투자형 사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통장 개설, 현금 인출 등 ‘점조작’ 형태로 이뤄져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